

피서도 좋지만 '눈 건강' 챙기세요

휴가철 유행성 눈병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수영장이나 해수욕장, 해양 레포츠 등을 즐기는 야외 활동이 급증하는 가운데 여름철 유행성 눈병 주의보가 발령됐다.

4일 질병관리본부 표본감시에 따르면 유행성각결막염과 급성출혈성결막염에 걸린 환자가 두 달 전에 비해 20% 이상 늘어났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등 각종 눈 질환에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29주) 유행성각결막염으로 보고된 환자 수는 983명으로 보고기관 당 환자수가 1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플로 눈병으로 알려져 있는 급성출혈성결막염의 보고 환자 수도 29주차에 254명으로 보고기관 당 환자수 4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높은 온도와 습도로 박테리아 및 세균의 서식이 활발히 진행됐고, 눈은 다른 신체 부위보다 쉽게 세균에 노출되기 때문이다. 지역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유행성각결막염은 충북에서 41.3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전남(40.5명), 전북(33.5명)이었다. 급성출혈성결막염은 광주(21.7명), 대구(21.0명), 충북(20.7명) 순이었다.

보라안과병원 양필중 원장은 "유행성 각결막염과 급성 출혈성 결막염(아플로 눈병)은 치료 방법이 딱히 없기 때문에 발병 시 가능한 눈에 자극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눈병은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전염되기 쉬우므로 가정, 직장 등에서 눈병환자가 생기면 세면도구나 사무용품 등을 따로 사용해야 하며, 손을 비누로 자주 씻어주며 감염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행성 각결막염

유행성 각결막염은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전염성이 몹시 강하고 20~40대 사이에서 주로 발생한다. 주요증상으로 눈이 갑자기 붉어지고 눈물이 많이 나며, 티끌이 들어간 것처럼 끈적끈적하고 눈이 부시다. 귀 밑과 턱 밑 입과선이 부어 통증을 느끼기도 하며, 발병 초기에는 충혈, 동통, 눈물흘림 및 심한 이물감이 나타난다.

또한 약 1주 동안의 잠복기를 두고 한쪽 눈에 발생했다가 2~3주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쪽 눈으로 옮겨가는 것이 보통이다. 어린이는 고열, 설사 등이 동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염증은 대개 3~4주 정도 지속되며 발병 후 약 2주까지도 전염성을 갖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

◇급성 출혈성 결막염

급성 출혈성 결막염은 흔히 '아플로 눈



보라안과병원 양필중 원장이 결막염으로 내원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휴가철 발병률 평상시보다 20% 증가 유행성, 증상 심하고 유병기간 3~4주 급성, 잠복기 짧아 심할땐 근육통·발열 수건 등 따로 쓰고 철저한 위생관리해야

병'이라 불리며, 바이러스 감염으로 생기는 특수한 결막염이다. 유행성 각결막염과 증상이 비슷하지만 잠복기가 8~48시간으로 짧고 전염성이 강해 가족이나 학교, 회사에서 1명이 눈병이 발생하면 전체가 걸리는 경우가 흔하다.

주증상은 이물감과 충혈, 눈곱, 눈부심, 눈물이 나는 게 특징이며, 이물감이 심해 초기에는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발생은 초여름 기온이 올라가면 서서히 늘기 시작해 장마가 끝난 뒤 본격적인 물놀이철이 되면 급격히 늘어난다. 환자의 25% 정도는 열이 나거나 무력감, 전신근육통을 보이며 드물게는 다리가 마비되는 수도 있다.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로 예방

눈병의 원인인 바이러스에 대한 특효약은 아직 없고, 시간이 경과하면 특별한 치료 없이 대부분 좋아진다. 안과에서 치료는 눈병자체를 치료하여 치료기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소염제와 항생제를 사용하여 눈병으로 인한 눈곱, 충혈, 눈꺼풀이 붉는 등의 불편한 증상을 줄여주고, 이차적인 세균감염이나 각막, 결막에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치료한다.

결막염 후에 각막염(검은자의 염증)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시력장애, 눈부심 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유행성 눈병은 평소에도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눈병은 감염된 사람의 눈의 분비물과 손에

여름철 눈병 예방 수칙

- ①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수돗물에 손을 자주 씻도록 한다.
- ② 손으로 얼굴, 특히 눈 주위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③ 수건이나 개인 소지품 등을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 ④ 눈에 부종, 충혈, 이물감 등이 있을 경우에는 손으로 비비거나 만지지 말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다.
- ⑤ 안질환에 걸린 환자의 경우는 증상완화 및 세균에 의한 이차감염 또는 기타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안과 치료를 받도록 한다.
- ⑥ 환자는 전염기간(약 2주간) 동안에 놀이방, 유치원 및 학교 등은 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은 피하도록 한다.

의해 전염되기 때문에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고, 눈병 유행 시기에는 수영장, 목욕탕 등을 비롯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정리=황애란 기자
/도움말=양필중 보라안과 원장



지난해 5월 화순전남대병원 의료진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의료설명회 겸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화순전남대병원, 우즈베크 진출 '청신호'

호남권 유일 정부 '병원수출 지원사업' 선정

화순전남대병원의 우즈베키스탄 의료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4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병원수출 프로젝트 발굴·지원사업'에 윤택립 정형외과 교수가 총괄책임자로 제출한 '첨단 관절치료기술 우즈베키스탄 진출사업'이 호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이번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은 의료 서비스 분야를 '수출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해외진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병원을 발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공모사업에는 화순전남대병원을 포함, 6곳이 선정됐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1월 '러시아 시장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청신호는 '수출전략산업'으로 키우기 위해 해외진출 성공 가능성이 높은 병원을 발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공모사업에는 화순전남대병원을 포함, 6곳이 선정됐다.

장기적으로는 우즈베크 현지에 클리닉을 설립,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관절치료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황애란 기자

전남대병원, 관상동맥우회술 2차 적정성평가 1등급

전남대병원(병원장 송은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허혈성심질환 환자에 시행한 관상동맥우회술의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 최고 1등급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삼급종합병원 41곳과 종합병원급 40곳 총 8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허혈성 심질환 환자'에 시행한 관상동맥우회술 2차 적정성평가' 결과 전남대병원을 비롯하여 총 22개 병원이 1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관상동맥우회술은 심장 근육에 혈액·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좁아졌을 때 다른 부위의 자기 혈관을 활용, 피가 관상동맥을 거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는 수술이다.

이번 평가는 ▲병원별로 관상동맥우회술을 얼마나 실시하고 있는지 ▲장기간 생존을 두고 재발을 줄인다고 알려진 내용(흉골 안쪽에 있는 동맥, 속가슴 동맥) 사용률이 얼마나 되는지와 퇴원 시 아스피린 처방은 잘 이뤄졌는지 ▲수술 후 출혈과 같은 합병증으로 인한 재수술률은 얼마나 되는지 등 모두 6개 지표로 평가됐다.

6개 평가지표의 종합점수는 평균 86.2점이나 전남대병원은 100.3점으로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조선대병원 '뇌혈관내수술' 인증기관 획득

조선대병원(병원장 민영돈)은 최근 대한뇌혈관내수술학회로부터 광주·전남에서 유일하게 '뇌혈관내수술' 인증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장석경 뇌신경외과 교수는 뇌혈관내수술 인증의 자격을 획득했다.

뇌혈관내수술 인증제는 우리나라 뇌혈관수술에 대해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뇌동맥류, 급성뇌경색 등의 뇌혈관질환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와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도입된 제도다. 뇌혈관수술은 첨단영상장비를 이용한 혈관조영술로 혈관 내 미세도관을 삽입해 각종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이다.

사람들이 높거나 수술 후 합병증이 많은 뇌혈관질환과 뇌졸중 등을 치료하기 때문에 정확한 치료 가이드라인과 수련 등이 필요하다.

/황애란 기자

(주)통일화물운수사는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 ▶취급차량 : 1t~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 전문
- ▶내트럭 프랜즈 가맹점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세요

(주)통일화물운수사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 3층 | 대표전화 | 062_955_2000 | 팩 스 | 062_956_2001